

시기는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시기(envy)는 ‘자세히 보다’라는 뜻의 라틴어 ‘인비디아’(invidia)에서 유래했습니다. 다른 이들의 행복을 보면 불행해지는 것이 시기입니다. 질투와 시기는 비슷한 듯 다릅니다. ‘나’에게 초점이 있는 ‘질투’는 부러움을 기반으로 한 경쟁, 열정 등을 불러일으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남’에게 초점이 있는 ‘시기’는 상대방을 결국 망하게 만들려는 야비하고 추악한 마음의 죄입니다. 시기는 멀리 있는 남보다는 가까운 지인, 가족 사이에서 발생하고, 월등한 사람보다 비슷한 형편이나 배경을 지닌 사람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시기를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약 3:15).

① 세상적 시기 ‘세상적’이란 ‘지배욕’을 상징합니다(막 10:35-45). 예수님은 세상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짊어지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서로 분내고 시기하며 자기 영광과 높은 ‘자리’를 좇았습니다.

② 정욕적 시기 시기는 ‘욕심’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결국 사망을 낳습니다(약 1:15).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갈 5:15). 자기 분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품어 무언가 집착하면 삶의 균형이 깨집니다. 밤낮 성공만 뒤쫓게 되고 상대방을 모방하려다가 오히려 그 이상을 넘지 못하고 맴돕니다.

③ 마귀적 시기 시기는 ‘열등감과 비교의식’으로부터 옵니다(삼상 18:6-17). 시기는 단순한 심리적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혔다고 말합니다. 사탄의 도구로 쓰이는 것입니다. 시기의 영이 덮치자 사울은 자신의 장점을 보지 않고, 다윗에게만 주목합니다. 그를 죽이려고 인생의 전부를 겁니다.

서로 ‘시기’하며 피차 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① 남을 망하게 하는 데 온몸과 온 마음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② 남을 주목하느라 나의 분복, 나의 장점을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